

정 신문화연구원 사회학 전공 김경일(48) 교수가 탐구해 온 주대상은 사회적으로 약한 소수자들이다. 《일제하 노동운동사》(창비·1992) 《이재유 연구》(창비·1993)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백산서당·2003) 등 그동안의 저작물만 봐도 김 교수의 연구방향은 쉽게 드러난다. 노동자와 빈민, 여성과 이민자 등과 같이 소외된 '그들' 과 그들의 '역사' 는 그가 학문의 길에 접어들면서부터 관심대상이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학문, 특히 사회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함께 나온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과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도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인 결과물이다.

“노동사 부분은 1992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관심분야를 약간 옮겨서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을 쓰게 됐어요. 두 권 모두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을 중간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사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은 노동사의 근원과 함께 노동자 상태와 의식, 일상생활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토한 책이다. 김 교수는 한국 노동운동사는 식민지와 자본주의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주로 20세기 전반을 다루지만 시기와 지역을 아울러 전체적 의미를 구현한다.

김경일

근대의
여성은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번 김경일 씨



여성문제 다루는 것, 여성과 반대되는 유일한 성별 남성의 특권

한편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에는 근대와 여성에 관한 깊은 천착이 배어 있다. 책은 '여성입장에서는 근대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근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했다. 시대의 알을 깨고 스스로 태어났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글자로 현대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근대’는 저의 주관심사입니다. 관련된 작업으로 당시 여성을 조명해 본 거죠. 제가 여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남성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아내와 딸이 있고 여대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성과 반대되는 유일한 성별로서, 여성을 다룬다는 것은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남성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좀 썩스럽지만 언젠가는 다루고 싶었던 문제라 일찍 여성을 주목하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책은 단순히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근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온 여성을 연구하는 데는 먼저 그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신여성’ ‘모던걸’의 시대적 의미 천착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은 188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성, 사랑의 자유, 단발, 스포츠, 소비형태, 학교, 직업의 분야로 당시 여성의 모습과 변화를 다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 자료를 마련했다. 구성과 내용전개 면에서도 신문, 잡지 등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신여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되살려 냈다.

근대의 여성들은 신여성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나혜석, 김명순, 윤심덕을 시작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김 교수는 신여성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가 역사 속에서 다루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시간을 고려한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보다 앞서 ‘모던 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일본의 신여성은 직업을 가진, 경제력이 있거나 소비문화를 즐기는 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은 이런 상황을 꿈도 꾸지 못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근대에 관한 인식에 시기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여성이 ‘신여성’과 ‘구여성’으로 분류되는 것도 전통과 근대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20년대에 있어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대만이 숭배되고 추앙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러다 192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평가를 받고 근대적인 것이 폄하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때에 신여성은 별종처럼 여겨졌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가정과 남편에 충실한 구여성을 원했습니다.”

소수의 여성들은 당당하게 근대의 중심이 되어갔다. 하이힐

을 신고 종이리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단발머리를 ‘강행’했다. 소설가 이광수도 ‘여성이 깨어야 국가가 산다’며 계몽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왜 여성은 깨어야 했던 것일까.

“여성과 남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의식과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에 비해 남성은 국민의 일원으로 민족독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체성 자체에 대한 문제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이뤄야 할 것은 같았습니다.”

신여성의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흔히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육’ 보다는 ‘근대’에 비중을 두고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성사 등역사 뒤안 연구, 현재적 의미가 중요

김 교수는 “요즘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작업의 하나로 역사 뒤안길에 있는 사건과 인물을 다룬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고 말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좌절과 고통의 시절을, 후세대에 전하기 위해 대중적인 역사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다시 알지는 거지요. 시대가 변할수록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전통이 발굴됩니다. 복고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죠.”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발굴’이 상업주의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윤추구나 한 개인의 정당성 확보 등 현실의 이해관계로 과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치를 지닌다. 그는 이제까지의 여성연구에서 근본적 의제에 무관심했음을 지적한다. 앞서간 여성들 안에서 끌어낸 교훈으로 여성을 위한 진정한 페미니즘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아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강했던 신여성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시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당시엔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고, 사회와 국가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시대에 융합되지 않아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신여성의 면면을 다룬 이번 책은 또 다른 연구의 시작을 알린다. 신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여성사와 동아시아 근대 문제로 그는 계속 나아간다. **김**

취재 홍이현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김경일 지음 | 푸른역사 | 400쪽 | 값 16,500원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김경일 지음 | 문학과지성사 | 528쪽 | 값 22,000원